

# 교육철학

## —현대 교육 사조—

고려대학교 교수  
유 인 중

### 1. 교육 발전의 일반적 경향

#### 1) 이념면에서

Equal Opportunity의 원칙을 실현하여 교육의 보편화와 만인을 위한 교육이 구현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만인을 위한 교육이 2차대전 이후 중등교육까지 실현되었고, 1960년대 이후부터 고등교육까지 실현되어 가고 있다.

#### 2) 제도면에서

교육의 기회 균등과 보편화를 위한 제도상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① 단선형 학교제도의 유지
- ② 의무학년의 연장
- ③ 학구제 실시
- ④ 별지교육의 강조
- ⑤ 개인차에 따른 특수교육
- ⑥ 장학제도
- ⑦ 급식제도와 transportation 등이다.

사립제도의 학교도 차차 공립교육제도학교로 입수되기 시작하고, 사립이 줄어들는데, 영국의 경우, 사립대학이 전통적으로 사립일 뿐 96%정도가 경영면에서 공립화 되었다.

공교육의 개념은 Martin Luther의 종교개혁에서 부터 시작되었고, 19C에는 국가적 견지에서 20C에 와서는 국망적 견지에서 사용되고, 최근 미국에서의 공교육 개념은 종교, 국가, 국방에 관계없이 개인의 Potentiality를 위해, 즉 Public education maximum development of individual potentiality를 위한, 인간 기본권에 기본을 둔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 3) 내용면에서

이질적인 집단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 내용은 다양화 되어야 한다.

무시험 진학을 민중은 90%가 찬성하지만 지적으로 특수층과 교원들은 반대하는데 교육내용 단 적용되면 집단의 이질적 요소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 4) 구조적면에서

개별화, 능률화가 이룩되어야 한다.

일제학습과 고정관념으로 인한 퇴생은 15%~95%로 추산된다. 심리학적 능률적인 면에서는 능력급학급이 많이 채택되지만 이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개별화란 형이상학적으로 구현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방향만은 개별화하고 있어야 하는데, 능력별 보다는 전인적으로, 즉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으로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학습지도를 해야하며, 개별화 할때 사용되는 교육의 technologic support를 받자는 것이 바로 능률화를 논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교육이 Equal Opportunity화하고, 다양화하며 개별화한 교육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이 따르게 되는데, 정부의 지원은 불가능하고 교육시설의 극대화만이 이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교육시설의 극대화란 70명을 중일 데리고 있는 것 보다는 35명을 데리고 그 부제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현대교육의 발전과정에서 오는 몇가지 갈등

### 1) 이념 대 현실

개발 도상국에서는 독특한 자기나라의 이념을 정립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세계적 추세만을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은 역사마다 정치적으로 cut off 되고 있는데, 최근 이념을 정립해야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조류에 따르고 있다.

앞으로의 사조는, 이념이나 철학보다는 현실 분석에 중점을 두어 개척적인 미래사회 건설에 치중해야 한다. 이념을 주장할수록 학교는 사회와 격리된다. 따라서 현실에서 이념을 찾아야 한다.

### 2) 보수 대 진보

진보주의와 본질주의의 차는 전통적 교육에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는데 이는, 노력, 정신훈련과 선생, 즉 어른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질이란 차차 변해가지만, 남아 있는 것은 고전(Basic)이 정신을 개척해 가는 힘이며, 따라서 미래세계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육성하는 고전교육이 중요하다.

### 3) 학술 대 직업

교육사상과 Vocationalism은 상호 보완적이고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은 거의 구분하기 힘들게 되었다. 따라서 학술대 직업교육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 4) 질 대 양

양과 질의 대결에서는 질을 중요시 하되 양을 병행하게 된다.

### 5) 전문 대 교양

전문교육과 교양교육은 최근 통합되어가고 상호 보완적으로 유지되어 간다. 그러므로, 잘 조직된 전문교육이 없는 교양과목 교육이 되지 않는다.

### 6) 학문영역구조 대 인간영역구조

구조적인 것은 과목을 세분할 뿐이므로 본질적인 것만을 쌓아야 한다.

각 학문에서 요구하는 구조적 양이 인간적으로 전부 받아 들여 질 수 없다.

### 7) 민족주의 대 국가주의

20C에 와서 민족주의가 많이 나타나지만 민족주의 개념은 과거와 다르고 정치적 배경속에서 우리의 Identity를 지키자 하는 범위에 국한된다.

아스락은 Internationalism에 가담하되 지역주의를 강조하면서 참여하게 된다.

### 8) 인력 대 사회적 요구

인력수급 정책은 사회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가능치 못하고, 따라서 사회적 요구쪽으로 많이 기울게 된다.

이상 열거한 갈등수에서도 기회균등을 줄기차게 바닥에서 부터 끌어 올리는 것이 현대 교육 사조이다.

## 3. 현대교육철학의 전망

1) 교육은 변화하는 세계를 예리하게 느끼고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Change는 Progression이다. Change를 거부하면 젊은이에게 미련을 주게 되고, 이는 가치관에 영향을 끼치므로 Change를 Accept해서 Vision을 제시하고 가치관을 설립시키고, 변화들 소화 극복하여 가치향상의 방향으로 끌어주어야 한다.

2) 교육은 사회와 국제경화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해야한다. 민족의 편견이나 우월감을 제거하고, 과거의 관념과 전통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교육 뿐이다. 과거에는 종교가 이러한 역할을 하려고 했으나, 편견을 가진 탓으로 실패한 것이다.

3) 교육은 선전과 교화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4) 교육은 바람직한 인간을 기대하고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돌아가야 하며, 이는 페스탈로치의 인간화의 부르짖음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식은 충분하나 옳게 사는 사회정의가 부족하다. 최소한 인간성을 지키는 교육철학이 필요하고, 과학으로 발전된 인간(Dehumanization)이 인간으로 되돌아 오는 태도(Humanization)가 중요하다.